

기후적 체험에 대하여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여름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 창 너머 작은 잎사귀들이 기분 좋게 들썩인다. 베란다에 놓여 있는 바질 화분에는 햇빛이 비치고, 화분이 있는 베이지색 탁자 위에는 잎사귀들의 그림자가 점점이 내려 앉는다. 바람의 결을 따라 그림자도 함께 흔들린다. 저물어가는 여름의 풍경은 나른한 평온으로 사방을 드리운다. 바람과 햇빛, 습도가 알맞게 어우러져 몸에 새 살이 돋는 듯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2026년 여름은 지나치게 뜨거웠다. 폭염은 때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고, 무기력해진 스스로를 마주할 때면 수치스러움마저 찾아들었다. 에어컨 없이도 견딜 만했던 어린 시절의 나는 사라지고, 몸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화반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폭염 아래 몸과 마음의 경계가 얇아지고, 몸을 통제하기도 힘들었다. 이것이 2026년 여름, 내가 지나는 '기후적 체험'의 실상이다.

지난 8월, 겹겹이 이어지던 폭염 속에서 눈길을 끈 앱 서비스가 있었다. '그늘로:무벽의 여름길'이라는 이름의 길 안내 앱으로, 한 대

학생의 기후적 체험에서 출발해 완성되었다. 이 앱은 폭염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그늘길을 안내해주고 있다. 한 언론에서는 이 앱을 켜고 걷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직접 비교 검증하기도 했다.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앱을 이용했을 때 그들의 비율이 20% 이상 늘었고,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확실히 걸을 만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개발자가 이 앱을 만들게 된 계기는 자신의 길고 긴 통학길에 있다고 한다.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 관악구까지 매일 통학하며 폭염에 지쳤던 그에게 그늘길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자신처럼 긴 통학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작이었다.

한 개인의 기후적 체험이 기술을 입으면 사람들에게 친절한 도구가 된다. 이 그늘길 앱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아버지의 땀을 식혀주고, 오랜 루병 끝에 슬로우 러닝을 시작한 친구가 덜 지칠 수 있도록 한다. 한 시간이나 걸리는 출퇴근길, 버스 창가에서 사선으로 깊숙이 내리쬐는 햇살을 손그늘로 가려야 했던 이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한 청년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후적 체험이 수많은 이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끼로 가득 찬 한 뼀 남짓한 땅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우리 눈 앞에는 열대의 정글이 펼쳐진다... 무성하기 이를 데 없는 커다란

나무들이 뻘뻘이 들어차 있음은 물론이다." 살충제 남용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렸던 환경주의자 레이첼 카슨의 저서 <센스 오브 윈드>의 한 줄기 문장이다. 그녀는 자연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느끼는 감각이야말로 지금의 지상을 존속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다. 늘 항상 자연 가까이에서 자연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경이로움에 빠졌던 그녀의 기후적 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향한 글과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한 청년의 기후적 체험은 누군가의 열기를 식혀주는 유용한 그늘길로 결실을 맺었다.

모두의 기후적 체험이 곧바로 '누군가'의 이로운 대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기후적 체험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그 목소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실상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모두의 그늘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통학길 기후적 체험을 들려보내지 않고, 그 감각에 집중해 그늘길 안내도를 만들어낸 청년의 이름은 유민준이다. 아직은 뒷모습만 보인 채 골목을 온전히 떠나지 않은 여름의 끝자락, 유민준의 기후적 체험이 건넌 그늘길 앱을 켜고 현관문을 연다. 오늘은 그가 안내한 그늘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볼 작정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차기 수협은행장 인선에 대해



기지 수협
안 재 선
(금융부)

신학기 Sh수협은행장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차기 수협은행장의 인선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달 21일 면접을 본 뒤 22일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면접자는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3명 등 총 6명이다.

이번 인선에서 외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이번 수협은행장 공모 접수 마감 한 시간 전에 깜짝 서류를 제출하면서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금융위원회 출신 현직 1급 고위 관료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이었다. 금융당국 내 요직 후보로 거론되던 고위 관료가 돌연 수협은행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을 두고 시선이 쏠린다.

이 원장이 FIU에 신입 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한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 원장은 FIU 취임 시기는 지난해 10월이다. 역대 FIU 원장들의 재임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직 금융당국 고위 관료가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은행장 공모에 나선 배경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수협은행은 지난 2022년 11월 강신숙 당시 수협중앙회 부대표를 행장으로 선임하면서 외부 출신 인사 대신 내부 인사를 택해 외풍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내부

출신인 신학기 현 행장이 연이어 행장직에 오르면서 외풍 논란이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내부 출신 행장이 고작 두 차례 연이어 선임된 시점에서 외풍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협은행 내부에서는 벌써 노조가 후보자 검증에 나서겠다고 버르고 있다. 수협은행은 언제쯤 외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은행장 자리는 특정 인사의 다음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다. 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수많은 임직원의 생존과 조직의 미래를 걸 만큼 은행장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현재 수협은행은 비은행 확대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인선만큼은 후보의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경영 능력과 수협은행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wotjs4187@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5일 (음 8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많은 이동은 불길합니다. 60년생 입 조심하세요. 72년생 고집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길합니다. 84년생 성에 맞는 직장을 찾았으나 능력부족으로 입사하기 곤란합니다.



소

49년생 지나친 자만심을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61년생 어린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년생 승진운이 있습니다. 85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로랑서

50년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62년생 큰 이익이 있으나 여유가 없어 발견하지 못합니다. 74년생 고집을 버리세요. 86년생 이성운이 좋은 시기에 있습니다.



도끼

51년생 두서 없는 행동이 어찌 이뤄지겠는가. 63년생 혼자의 힘으로 목표 달성 어렵겠습니다. 75년생 참고 인내하면 노력의 결실이 있겠습니다. 87년생 운세가 좋지 않은 하루입니다.



조

52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64년생 곧 나아지니 휴식하세요. 76년생 선후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88년생 재발된 병으로 가족에게 근심 주겠습니다.



뱀

53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65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77년생 금전거래를 하면 길합니다. 89년생 하는 일마다 다소 꼬이고 잘 안 풀릴 수 있으니 자제하세요.



말

54년생 바른 마음 가짐을 가지고 분수를 알고 행동하세요. 66년생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8년생 지금 하는 일에 열중하세요. 90년생 허황된 생각을 버리세요.



양

55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67년생 집매매 귀인이 나타납니다. 79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는 운입니다. 91년생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원숭이

56년생 다른것은 다 필요없습니다. 건강하세요. 68년생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80년생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92년생 이상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닭

57년생 집안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9년생 새로 만난 사람과 오래 가지 못합니다. 81년생 혈압이나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93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개

58년생 피하는 일에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70년생 여행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이 들끓습니다. 82년생 계속 움직이심이 길합니다. 94년생 투자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

59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71년생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때입니다. 83년생 소망은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95년생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잘 배우도록 하세요.



김상회의四季

시민 배심원

법률 공부를 조금씩 접하며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법원이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시민도 갑자기 법원의 부름을 받고 법정的重要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바로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배심원이란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되어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피고인의 유무죄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말한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시민들이 모여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아닌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에도 이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한다. 유죄면 형벌의 종류와 정도에 관해서도 의견을 낸다.

물론 재판의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 어떤 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며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형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사건의 성격,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관할 지역에 살고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추첨한다. 이들에게 안내문과 출석통지서를 보낸 뒤, 재판 당일 법원에 나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인이 질문을 던져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최종적으로는 재판에 따라 5명, 7명, 혹은 9명의 배심원이 최종 선정된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다는 우편물이 온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된다. 일반 국민의 상식과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지식이 없어도 관계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퍼즐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1 2 9 9 2 8 7 8

9 8 8 2 7 1 9 6 2

7 9 2 8 8 6 9 2 1

2 2 6 7 1 9 8 8 9

9 9 7 8 2 8 2 1 6

8 8 1 2 6 9 2 9 7

6 6 8 9 2 7 1 9 7

2 7 9 1 9 2 6 8 8

1 2 9 6 8 8 7 2 9

2 8 7 6 9 9 2 1 8

8 9 6 2 7 1 8 9 2

9 2 1 2 8 8 9 6 6

9 7 8 9 2 2 6 8 1

1 2 8 9 6 7 9 8 2

2 6 9 8 1 8 2 9 7

6 8 2 1 8 9 7 2 9

8 1 2 7 9 6 8 2 9

7 9 9 8 2 2 1 6 8